

어린이 책꽂이



▲운동장을 들어 올리는 공=이준섭 시인이 한국에서 첫 시도한 스포츠 동시집, 시를 통해 운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교훈적인 요소도 담았지만 놀이하는 아이들의 모습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를 읽는 아이들의 어깨를 들쭉 들쭉하게 만든다. (정인출판사·7천500원)



▲오이대왕=1984년 안데르센상을 받은 오스트리아 동화작가 크리스티네 너스틀링거의 청소년소설이다. 중학교 1학년인 주인공 볼프강의 집에 밀가루 반죽으로 빚은 듯한 오이 모양의 생명체 '오이대왕'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한 가정 안에 공고히 자리 잡은 모순과 불신을 불신을 파헤친다. (시계절·9천원)



▲돌부처와 비단장수=옛날 한 바보가 비단을 팔러 간다. 엄마는 속을까봐 말없는 사람에게 팔라고 한다. 바보는 시장에서 한 필도 못 팔고 말없는 돌부처에게 외상으로 판다. 다음날 외상값을 받으러 간 바보는 돌부처와 실랑이를 벌인다. 박지운의 그림동화책이다. (아이·8천500원)



▲협동심=협동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 외톨이 소미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면서 단원들과 부딪치며 갈등을 겪는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소미는 다른 친구들과 눈을 맞추고, 다른 악기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맞춰 간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마침내 아름다운 음악으로 어우러진다. (글고운·8천원)



▲샘 괴롭히기 프로젝트=이훈화 시인의 장편 동화. 곳곳하고 매사에 확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왕따' 슬기, 자신의 당찬 걸음과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을 잘 조화시켜 성장해 가는 밝은 한 4학년 여자 아이의 이야기를 유쾌하고도 발랄하게 그렸다. (문학수첩리뷰북·1만5000원)



▲수학 괴물=어린이 교육방송과 프로그램의 대본과 노래가사를 쓰고 있는 미국 작가 데니 슈니칠린이 유년시절 수학공포증에 시달린 경험을 바탕으로 쓴 동화로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나 공포감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림책이다. (미래아이·9천원)



▲입안이 근질근질=동시 작가 이성자씨의 새 동시집.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좋아한다는 말을 못 해서, 선생님의 흉을 보고 싶어서, 틀린의 새 책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입안이 근질근질'한 아이들의 속마음을 담은 소박하고 정감 있는 동시 52편을 묶었다. (청개구리·7천800원)

▲살림살이= '곰박' '살감' '떡국구미' '자배기' 등 오래 전부터 우리 겨레가 곁에 두고 써 온 우리것이지만 요즘 아이들은 물론 어머니들도 낯선 살림살이를 모아 세밀화로 그렸다. 음식을 만드는 밥집 아줌마가 들려주는 살림살이 이야기. (보리·3만5천원)

할아버지 점원 커피 팔며 인생을 배우다

‘땡큐 스타벅스’ 마이클 게이츠 길 지음



에일대를 졸업하고 세계적인 광고회사 JWT(J. Walter Thompson)에 입사, 이사로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하던 마이클 게이츠 길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지를 받는다. 해고를 당한 뒤 시작한 사업도 순조롭지 않았고, 자신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하며 아내에게 전 재산을 넘겨줬다. 그의 몸은 천 만 명 중 한 명꼴로 증세가 나타나는 병까지 걸린 상태. 이제 그는 뉴욕의 어느 스타벅스 매장에서 라떼 한 잔을 들고 부모님과 함께 살던 옛 자택을 바라보며 쉬는 것마저 버거워진 처지가 된다. 그때, 별 불일 없는 흑인아가씨의 뜻하지 않는 제안을 받는다. “스타벅스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땡큐 스타벅스’(원제 ‘How Starbucks saved my life’)는 대기업 입문에서 퇴출돼



여전히 뉴욕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자 마이클 게이츠 길.

스타벅스 말단 직원이 된 한 남자의 자전적 이야기다. 예순 세 살의 나이에 시간제 점원으로 일하게 된 마이클은 커피 매장에서 누렇게 더께 낀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잘나가는 옛 동료의 커피 시음을 들면서, 겁대기 과거를 버리고 ‘진짜 인생’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마이클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

안한 당사자인 빈민가 출신의 흑인 여성 크리스탈은 마이클이 그동안 덧없이 살면서 놓치고 있던 많은 가치들을 일깨워준다. 특히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타인을 대했던 그에게 그녀의 ‘타인에 대한 존중’의 가르침은 큰 감동을 주었다. “물론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힘든 일도 많이 겪었다. 하지만 이 스타벅스에서 나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크리스탈에게서 존중도 받고 있다. 이제 나는 고된 육체노동도 신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화장실 청소도 마찬가지! 나는 더 많이 노래하고 더 많이 웃어아한다.”(본문 98쪽)

주문받기와 계산하기, 개점과 영업 마감, 커피마스터, 에스프레소 바에서 커피 만들기 등 저자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은 그 자체로 감동을 선사한다.

책은 또 성공과 행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큰 돈을 벌어 성공하지만 진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현대사회에 간직한 울림으로 다가선다.

“과연 나는 행복하다 할 수 있는가? 다시 내 가슴에 손을 갖다 댔다. 다시금 훈훈한 사람, 평화, 행복이 느껴졌다. 확실히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정..... 혹시 이제껏 내가 저지러 그 많은 과오들이 내가 편안하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누에 고치를 깨부수고 나오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게 아닐까? 내가 삶이 풍성하고 빛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르겠다.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 가슴이 느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다.”(본문 226쪽)

끝으로 앞으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과거는 짧게, 미래는 길게’라고 되뇌는 저자의 다짐은 하루하루 분주히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일과 삶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는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여전히 뉴욕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마이클의 이야기는 톰 행크스를 주연으로 한 구스 반 산트 감독의 영화로도 제작 중이다. (세종서적·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외국계기업 CEO들의 리더십

‘세계를 감동시킨 ...’ 신박제 외 14명 공저



필립스전자코리아 최초로 1993년 한국인 CEO가 된 신박제 현 NXP반도체 회장의 리더십은 ‘전략적 리더십’으로 요약된다. 외환위기가 고조되던 98년 한국의 첨단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로 투자를 중단하는 사태를 목격하고, 재정 상태가 건전한 필립스 본사에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필립스를 설득했고, LG엔 필립스 본사의 입장이 꽤 대화를 중재했다. 그 결과 99년 필립스는 16억 달러를 투자해 LG와 합작법인을 만들었다. 책 ‘세계를 감동시킨 CEO 리더십’은 윤운수 힐라코리아 & GLHB 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등 외국계기업의 한국법인 대표 15명이 지난 20~30년간 현장을 지휘하며 만들어간 리더십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평사원으로 시작해 기업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성장에 기여하고, 그 성과의 기반 위에서 CEO로 발탁돼 성장을 이룩한 이 시대의 경영 귀재들이다.

또 책에는 지난 50여년간 이들이 각자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기업의 임직원, 고객사, 글로벌 본사의 인프라와 지식 콘텐츠를 결합해 어떻게 성장신화를 만들어 냈는지 1장 ‘전략 리더십’ 등 7개 부분으로 나눠 묶었다. (휘즈프레스·2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 근대 100년 ‘보·혁 논쟁’

‘길들이기와 ...’ 박노자·허동현 지음



‘우리 역사 최전선’(2003)과 ‘열강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기’(2005)를 통해 다양한 한국 근대 100년의 모습을 토론했던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 교수와 허동현 경북대 교수의 또 다른 논쟁이 ‘길들이기와 평가거기를 넘어’로 출간됐다.

진보 논객 박노자에게 한국 근대 100년은 ‘국인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비롯된 ‘길들이기’다. 노동자에 대한 무제한적 착취, 여성에 대한 구조화된 차별 등 거시적 문제는 차치하고 미시적 영역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근대는 타자와의 연대를 잃어버린 공격과 결멸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보수 논객 허동현은 한국 근대 100년의 자화상을 ‘평가거리’로 본다. 또 지금도 민족 지기기와 근대화 이룩하기라는 과제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친일이나 반일이나, 민족이나 아니냐를 잣대로 너와 나를 구별하던 평가거기를 넘어야 할 때. 너는 내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식인과 친일, 여성, 대중문화, 종교 등 여러 방면에 걸친 두 저자의 논쟁에 담긴 한국 근대 100년의 여러 풍경들은 우리 역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자 ‘내일의 어딘가’를 위한 진심어린 조언으로 읽힌다. (푸른역사·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화가 박수근 가족이 겪어온 삶

‘빨래터’ 이경자 지음



박수근의 ‘빨래터’는 국내 경제 사상 최고 가격으로 낙찰된 후 위작 논란에 휘말린 불운한 작품이다.

‘절반의 실패’, ‘혼자 눈뜨는 아침’ 등 여성의 삶과 사랑을 그린 작품을 주로 써온 중견 소설가 이경자씨가 펴낸 ‘빨래터’는 박수근의 일대기이다. 위대한 예술가를 아버지로 둔 아들의 힘겨운 성장소설이기도 하다.

소설은 지난 2007년 벼두 터져 나왔던 ‘빨래터’ 위작 논란으로부터 시작된다. 문화부 기자로부터 위작 논란을 전해들은 아들 성남은 ‘빨래터’의 원소장자였던 존릭스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고 소설은 과거속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아버지와 같이 화가의 길을 걷고 있는 성남에게 아버지는 극복해야 할 존재였다. 소설은 성남이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소설의 대부분은 아버지 박수근과 아들 성남, 그리고 어머니 김복순의 삶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가장 가까운 존재이면서, 때론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대해서도 곱씹어 보게 만드는 소설이기도 하다. (문양·1만원)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급 매물 중개 전문)
공시지가2억매매가1억천만원
▶상업지역 130P 삼각지
공시지가1억7천매매가1억4천5백만원
▶대지 180P 북구 두임동 한옥
공시지가+건물표면적12억5천매매가7억5천
▶45m도로 접 목욕탕 및 복합상가+주택
북구 대 220p 건 400P
분양가8억아파트1300세대 상가매매가2억5천
▶35m도로 접 1층 상가 건물 약 100p 땅 지분 93p
한의원 내과 직할
공시지가+건물표면적4억6천매매가3억5천
▶현재 한의원 경영 중 대 130p 건 230p
공시지가+건물표면적6억5천매매가3억8천
▶대 100p 건 300p
상업지역약95p공시지가3억5천매매가2억4천
▶30m 도로 접
감정가3억8천매매가2억
▶잠심 대 270p 건 180p
▶1층 점포 6칸 별도 주택 2동
▶2층 사무실
32억 빌딩급매
▶대 200p 건 450p
▶보 8억원 월2350만원 용 13억포함
♣공시지가 이하 급 매물 접수 환영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토지구합 수완지구 건축상담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도지매매 상가·건물매매
▶수완지구 333-1(명일경계) 60마터
대로변 상업지, 8만2천
▶수완지구 720㎡ 33만 8000원
▶수완지구 아파트 단지역 정문 입구
상업용지 500㎡ 미당 210만
▶수완지구 단원빌딩 170세대 정문 앞주
택지 330㎡ 3.3만 4500원
▶998세대 아파트 3,200세대 중일
1층 67.5㎡(20.42평), 영의연경 가능
대가: 5억 5천, 대출: 2~4억 가능
▶822세대 아파트 3,200세대 중일
1층 101.64㎡(30.76평), 영의연경 가능
대가: 5억 8천, 대출: 2~4억 가능
▶998세대 아파트 3,200세대 중일
2층 35.5㎡
대가: 8천, 대출: 4~5천만
노블메디컬센터 임대분양
▶수완지구 중심상권
-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5,000㎡
- 1층: 약국, 전차역, 인형동, 부동산, 이동통신
- 2~5층: 병의원, 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물 안과, 재활센터
- 원내 시술실 및 영의 주저장 설치로 주저장 100% 확보
▶1층 파라메트 임업확정
6~8층: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원 확정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명성공인중개사
016-611-3424
011-625-0510
수완지구
1일 유통인구 30만명
모아아파트·우미아파트 앞
3면 도로접
1층 330㎡ 분할가능
편의점/이동통신/약국/
인경점/호프전문점/김밥
점포 앞 잔디광장 300㎡ 있음
2층 340㎡ 170㎡
소아과/치과/내과/
전문클리닉센터
3층 340㎡ 분할가능
영어/수학/논술/과학학원
4층 340㎡
피부관리/요기방
5층 340㎡
커피숍/스포츠센터
6층 200㎡
레스토랑/호프전문점
2009년 3월 입주예정

다우공인중개사
☎523-8114, 011-603-1308
(용봉지구 현대3차 시가리)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 대360㎡/건841㎡(지상4층)/15m도로변 코너/용5억6천만/보2억3천월800만원/매가12억7천만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 대437㎡/건870㎡(지상4층)/15m도로변 코너/용6억2천만/매가13억5천만
▶최고급 무인텔
• 대2,057㎡/건2,248㎡/객실28/용15억/매가28억원
▶농장주택(힘평군 대동면)
• 전46,350㎡/2차선 도로접/분할가능/매가 6억5천만
▶청고부지 및 전원주택(고서면)
• 14,109㎡(주거지역8,870/그린벨트5,239)/현재 단칸농원/매가18억5천만
▶전원주택 및 창고부지(정동면)
• 1,421㎡/1층 주거지역/북계도로접/남향/10m도로계척선접/매가12억5천만
저희 사무소는 전국중개 의뢰한 물건만 취급합니다.

대인동삼일부동산
☎(02)23-1140, 020-801-002-2532
(용봉형 신분점, 대인동 소형시영내)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권으로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상과 언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정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정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해경법률경매
위탁·법정경매
T.062)225-2885 H.P.011-605-7777
*광주 전남권 경매 전문